

Fredric M. Miller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0)

조 경 구*

여기에 소개하는 책은 SAA에서 펴낸 Archival Fundamental Series로 나온 일곱 권 중의 한 권으로,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전체 처리 과정 중에서도, 기록물을 이관받고, 그것을 관리와 활용에 편리하도록 정리, 기술해주는 작업에 관한 매뉴얼이다. 서두에서 저자가 “매뉴얼은 실제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대로, 이 매뉴얼은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의 처리 과정에 대해,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난 뒤,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해 전어야 비로소 기록관리에 대한 국가적 법령이 제정되었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 따른 학문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기록관리의 초창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시작이 다 그렇듯이, 지금은 학계와 현장에서 법령과 제도와 실무

* 서울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에 대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그 연구 성과가 한꺼번에 뒤섞여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는, 몹시도 혼란스러운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역동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의 기록관리전통이나 실무, 그리고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책은, 기록학에 대한 학문적 이론 정립과 실무적 지침 마련이 모두 시급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물론 그들의 성과가 그대로 우리의 성과가 될 리아 없겠지만, 그들의 이론과 실무의 궤적과 현재의 모습을 추적해 봄으로써 최소한 비슷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들의 성과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책이 갖는 그러한 성격은 아래에 인용된 저자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보존소 내에서의 구체적인 처리 활동은 상세한 내부 절차 매뉴얼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 매뉴얼에서 대강의 개요만 그려진 원칙을 해석해서, 각 보존소의 임무와 그 소장물에 알맞도록 변형하여 실제적인 업무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매뉴얼은 포괄적인 원칙과 일상의 실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장. 서론>은 이 책의 도입 부분으로서 주로 개념 정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카이브즈와 도서관의 차이, 아카이브즈 자료와 도서관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 다음, 기록물 처리과정의 중심 작업인 이관과 정리, 기술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려 준다. 이어서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아카이브즈 정리, 기술에 대한 정의, “기록물 군”과 “컬렉

션”의 설명, 시리즈에 대한 정의, 아키비스트의 임무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제 2장.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 상호 비교와 모델〉에서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비교를 해주고 있다. 각 기관의 임무와 소장물의 차이, 수집과 처리 과정의 차이, 기술과 열람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한 뒤, 두 기관의 기록물과 보존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런 다음 저자는 가상의 네 가지 기록물 모형을 상정하고 있다. 1.개인 서류 컬렉션 2.조직의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3.기관 아카이브즈 기록물 군 4.공기록물 시리즈 이렇게 네 가지 전형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 3장. 기본적인 아카이브즈 원칙들〉에서는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집합적 기술의 원칙, 계층적 관리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제 1장에서부터 제 3장까지에서 정리, 기술의 논의를 펴기 위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준비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제 4장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리, 기술에 앞서서 〈제 4장. 이관〉에서는 이관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활동,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관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1) 현장 예비 작업, 2) 물리적, 법적, 행정적 이동, 3) 물리적인 상태 점검, 4) 내용 분석, 5) 예비 목록 작업 등을 제시한다.

일단 이관되어 온 기록물에 대해서, 이 책의 5장부터 7장까지는 정리가, 8장부터 10장까지는 기술이 논의된다. 〈제 5장. 정리와 기술 : 일반적인 고려사항〉에서는 우선순위의 설정과, 소장물에 대한 정리, 기술 수준, 처리 계획 등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과 설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원을 분배하는 처리 과정 관리, 그 관리의 핵심 요소 등을 설명한 뒤, 자동화의 효

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6장 정리 : 계층적 관리〉에서는 보다 큰 규모에서부터 작은 규모 (“보존소 차원 → 기록물 군/메뉴스크립트 컬렉션 → 시리즈 → 파일 단위 → 개별 문서”)까지 내려가는 정리의 ‘다섯 단계 계층’ 개념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위 군과 하위 시리즈 단계 개념을 설정해 주고 있다. 또 이것을 출처에 따른 정리(기록물 군, 컬렉션, 하위 군)와 파일 구조에 따른 정리(시리즈, 하위 시리즈, 파일들)로 나누면서, 시리즈가 두 정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현대 기록물 조직과 관리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 7장 정리 : 관행과 절차〉에서는 정리와 기술, 활용을 연결시키면서, 구체적인 작업과정으로 예비적 작업, 출처에 의한 정리, 시리즈 차원의 정리, 재정리, 파일 단위와 문서의 정리, 물리적인 취급과 보관의 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제 8장. 기술 : 아카이브즈 정보의 본질〉에서는 아카이브즈 정보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인 기록물과 그 생산자들에 관한 정보, 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 따르는 표준과 규칙 등에 대해서 간단히 개관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정보에 대한 기술 요소들을 살펴면서 1.기록물에 관한 정보, 2.기원과 전후 맥락에 관한 정보, 3.아카이브즈 활동과 기술 관리에 관한 정보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요소들과 관련지어서 전자파일과 전자관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술실무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제 9장. 기술 도구들〉에서는 기술 도구로서의 통합적 기술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그에 필요한 융통성과 포괄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기술 도구들을 내부적 도구와 대외적 기술로 나누고, 내부적 도구들로는 이관 문서, 생산자가 제공한 검색도구, 인벤토리, 시리즈-기록물 생

산자 연결 시스템, 색인과 목록, 대외적 기술로는 안내서, 전문적인 기술, 요약 집합적 기술을 예로 들어 설명하여 다양한 기술 도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제 10장. 기술 표준〉에서는 내부적 표준화와 외부적 표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표준화된 기술 포맷에 대해서는 USMARC AMC, 표준화된 기술 규칙에 대해서는 APPM, 표준화된 어휘에 대해서는 의회도서관 주제표목(LCSH)의 용어들과 의회도서관 이름전거(LCNA)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체 책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 책은 비록 가상의 모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무를 다루기는 했지만, 오히려 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기록물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록물 관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물론 언어 구조와 문화적 관습, 행정적 실무가 크게 다른 우리나라에 이 이론서가 그대로 적용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무가 우리의 기록관리 학계와 현장에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발견하고 수정 보완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록학, 기록관리 실무에도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